

# 남원시, 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인센티브 1억5000만원 지원

남원시가 지난달 31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확산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구성은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영호남 지자체 간 연계협력체로 주목받아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을 이끌어 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남원시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상생협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조합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초지자체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이어 최초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장인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입 관련 대응, 상생협력 벨트지정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준비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수영장 공모 선정

### 국비 30억원 확보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수영장을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응모했다. 남원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수영수업, 노인 맞춤형 수업, 수영대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사용자 대비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수영장 시설이 시급한 수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새로 건립될 수영장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부지 내에 지하 1층, 지

상 2층 규모로 일반 6레인(25m), 유아용 풀, 체력단련실, 기타 부대시설 등 현대식 수영장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국 및 동호인 수영대회를 유치해 명실 상부한 지리산권 체육중심도시 완성을 추진한다는 포부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 역시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용호 국회의원과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끌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기업인과 간담회... 상생협력 다짐·방안 모색

### 20여개 기업 30여명 관계자 참석

순창군이 최근 관내 기업인들과 민관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주)대상, 한국씨엔티(주) 등 20개 기업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순창군 등이 주관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관계 공무원이 고용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고용관련 지원정책은 크게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 안정

자금 등 3가지 분야의 14개 제도로 이뤄진다.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체에 월 40~60만원의 직접지원과 재택근무 시설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 진입중인 현재 세대를 반영하듯 만 60세 이상 채용 기업체의 인건비 지원과 설비, 장비 등 간접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고용안정 지원책이 불경기로 고생하

는 기업인들의 경제상황을 해소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다.

군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이차보전,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등과, 연초 군이 발표한 지원시책들을 활용해 기업운영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올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7개 업체에 1억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는 4개 업체에 1,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주최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가 인생대학 교육을 했다

# 100세시대 재설계

### 순창군, 인생대학 교육 성료

순창군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기 인생대학 교육이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제3기 인생대학과정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중년기 세대이후 여생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후설계 기본 교육과정이다. 지난 6월, 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지난 1일에 7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첫날은 서울대학교 한경태 교수의 'Well-Aging과 사회적관계', 전남대 박상철 석좌교수의 '노화와 장수의 과학화학적 함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상철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국가가 고령인 6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차 의무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날부터는 이은 강연과 함께 순창의 대표상품인 고추장과 인절미 등 발효식품체험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다.

또한 경북대 박기덕 교사의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건강마사지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강의해 수강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군은 골드룩 과정과 관계개선장수의 과학화학적 함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상철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국가가 고령인 6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차 의무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 아리

###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 대응태세 본격 돌입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지난 달 31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 산불위협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청장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 건수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보건의료원

### 진료시간 9시로 변경

임실군보건의료원은 겨울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는 진료시간을 오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원은 그동안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농철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간 앞당긴 8시30분부터 실시해 왔으나,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는 오전 9시로 변경하게 됐다.

진료시간 변경은 그동안 농촌지역 특성상 영농철에 아침 일찍 의료원을 찾는 내원 환자들이 많아 주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영농철이 끝나감에 따라 진료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임실보건의료원은 2018년도에 2억2천만 원을 투자해 이동검진차량을 지난 6월 구입해 했고, 군수공약사항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6천만 원을 투입해 11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총무·화랑훈련 상황보고회가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 임실군, 총무·화랑훈련 상황보고회

임실군 총무·화랑훈련 상황보고회가 1일 오전 9시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인 박진두 부군수의 주재 하에 열렸다.

지난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인 '2018년 총무·화랑훈련'은 전시·평시의 작전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

로 후방지역 적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 중요시설 방호훈련, 테러 대비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비상대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통합방위 종합훈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